



건설·부동산업 부실 지표 악화...지역 경제 '빨간불'

제2금융권 연체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
2년 새 건전성 악화지표 5-9배 ↑...금융불안 고조
양부남 "지방 중소 건설사 어려운 상황 대책 필요"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 지표 악화로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건설·부동산 업종 관련 연체율·고정 이차이여신 비율 등 건전성 악화 지표가 2년 사이 5-9배로 치솟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 116조2천억원(55조5천억원+60조7천억원), 500조6천억원(309조1천억원+191조4천억원)에 이른다.

2개 업종의 잔액 모두 한은이 해당 업종 대출 통계를 금융업권별로 나눠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다.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건설업 112조1천억원, 부동산업 478조2천억원)보다 각각 3.66%, 4.68% 늘어난 수치다. 또한 2년 전 2022년 1분기(101조4천억원, 437조2천억원)와 비교하면 각각 14.60%, 14.50% 증가했다.

대출 규모 뿐만 아니라, 부실 대출 지표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올해 1분기 기준 7.42%, 5.88%

로 역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2023년 1분기(3.38%, 3.15%) 이후 1년간 각각 2.2배, 1.9배로, 2022년 1분기(1.79%, 1.31%) 이후 2년 간 각각 4.2배, 4.5배로 뛰었다.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적은 은행권에서조차 건설·부동산업 연체율(1.01%·0.24%)은 2016년 3분기(1.37%), 2019년 1분기(0.24%) 이후 각각 7년6개월,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자여신(NPL) 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이 19.75%, 부동산업은 14.28%에 달했다.

저축은행의 고정이자여신 비율은 건설업의 경우 1년 전(4.41%)이나 2년 전(2.2%)의 무려 4.5배, 8.9배 수준이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 2013년 건설업종의 고정이자여신 비율은 30%를 웃돌았는데 당시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의 고정이자여신 비율은 부동산업도 최근 1년, 2년 사이 각각 3.3배(4.36%→14.28%), 7.8배(1.82%→14.28%)로 급등했다.

은행권의 건설·부동산 업종 고정이자여신 비율(1.85%·0.40%)도 2019년 2분기(2.07%), 2019년 3분기(0.42%) 이후 각각 4년9개월, 4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양부남 의원은 "건설·부동산업 부실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이 크게 침체돼 있어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 의원은 "높은 연체율 등이 금융 부실과 지역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피 흘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중 총격을 받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를 흘리며 경호원들의 보호 속에 긴급 대피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유세 중 피격
귀 윗부분 관통 부상
총격범 현장에서 사살

11월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둔 13일 오후(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당했다. ▶관련기사 11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피를 흘리면서 긴급 대피했고 병원에서 안전을 확인한 뒤 긴급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이날 오후 6시5분(미국 동부시간)에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마련된 야외 무대에서 유세를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던 중 6시10분에 갑자기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으로 오른쪽 쪽 뒤를 만진 직후 발연대 밑으로 급히 몸을 숙였다. 경호원 여러 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연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이때도 간헐적으로 총소리는 계속됐고 연단 뒤에서 유세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면서 일부는 몸을 숙였다.

이후 어디선가 "총격범이 쓰러졌다"는 소리가 들렸다. 총격범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비밀경호국(SS) 요원에 의해 사살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바로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그(트럼프 전 대통령)는 괜찮으며 지역 의료 시설에서 검사받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총격범이 총기 반입이 금지된 유세장의 보안 구역 밖의 높은 위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연단을 향해 여러 발 총을 쏘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공격형 소총인 AR-15형 반자동 소총이 회수됐다.

사실된 총격범 외에도 유세를 지켜보던 지지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불쌍사나운 민주 광주시의원들 '자리 다툼'

민주당 광주시당, 상임위원장 부결 등 시의회 '내분'에 경고
의회 독립권 침해·월권 논란도... "경선 폐지해야" 여론 비등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자리 다툼이 불쌍사나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경선을 통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했지만 모든 선거에서 무효표와 기권 이 속출한 데다, 교육문화위원회는 과반을 넘지 못해 결국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광주시당은 '경선 결과를 준수하라'며 소속 시의원들에게 경고를 보내 의회 독립권 침해·월

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 독점' 구도 속에 무의미한 당내 경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4일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과 관련, 당론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12일 보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공문을 통해 "당원에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당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미준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후속 조

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11일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명진 교육문화위원장 후보가 1·2차 투표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하며 낙마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명진 후보는 1차 투표에서 11표를 얻은 반면, 무효는 7표, 기권은 5표 무더기로 쏟아졌다. 2차 투표에서도 찬성 11표, 무효 6표, 기권 6표로 과반(12표)을 넘지 못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거 역시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후보가 찬성 12표, 무효 7표, 기권 4표,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후보·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후보는 각각 찬성 14표를 얻어 겨우 과반을 넘기며 선출됐다. ▶2면에 계속 /박선경 기자

Today
인터뷰·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5면
관리비도 버거운 '금남지하상가' 6면
윤영철 마저...KIA 마운트 '비상' 16면

전남관광 상품 세계화, 글로벌 매력도시 도약

2024~2026

전남 세계관광 문화대전

Jeonnam Tourism, Meet for Deep Korea

5대 로컬
관광자원 세계화

한국의 매력을 담은
남도 축제
동일한 테마의
해외 축제와 교류

K-food의 본가
남도 미식
주류페스타,
미식 투어

세계인이 주목한
남도 웰니스
전남사찰,
산란·해양지유, 둘레길

한국문화의 중심
남도 K컬처
남도소리, 고백·송가,
세계유산·수목

한국인의 고향
남도 농산어촌
슬로시티,
농촌체험마을, 민간정원

전라남도 JEONNAM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